

배포일시	2021. 11. 25.(목)부터 보도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차 주 일
			담 당	김 미 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홍보담당	연락처	(033) 640-4063	

강릉시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열고 2022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11월 25일(목) 제29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금)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5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에 대해 의결했으며, 김한근 시장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또한, 신재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강희문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합창대회 개최 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추진, 어촌뉴딜300사업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초당아트피아 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해마다 여름철 침수피해가 발생하던 진안·저동지구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오랜 기간 민원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한 중요한 결실이다.” 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으로 세심하고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으로 조례안 등 안전심사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이어지며, 12월 17일(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끝.